

위기 극복과 프런티어 도전을 위한 「일본재생 기본전략」과 시사점

이동우(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

- 2011년 9월에 출범한 일본의 노다(野田) 정부는 2011년 12월 24일에 「일본재생 기본 전략」을 발표하고, 위기 극복과 프런티어 도전을 다짐
 - 재정악화, 인구감소, 고령화, 부의 집중과 빈곤층 확대 등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구조적 문제를 ‘저변의 위기’로 규정하고, 대지진, 원자력발전소 사고, 엔고(円高) 등 최근의 국난을 ‘위기 중 위기’로 표현
 -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적, 국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프런티어를 개척하여 ‘희망과 긍지의 일본’으로 부활한다는 목표를 설정
- 기본전략을 발표한 후 금년 2월에는 국가전략실 내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런티어 분과회(分科會)’를 설치하여 국가 중장기비전 수립에 착수
 - 금년 6월 말까지 2050년을 내다본 국가 미래상 및 2025년까지의 구체적 정책방향과 수치적 목표, 추진일정 등을 담은 「일본재생전략」을 마련할 예정
 - 비전 달성을 위하여 일본이 개척하여야 할 영역(프런티어)으로 「번영 프런티어」, 「행복 프런티어」, 「예지(叡智) 프런티어」, 「평화 프런티어」의 4개 프런티어를 설정하고, 프런티어별 논의를 진행 중

| 정 | 책 | 적 | 시 | 사 | 점 |

- 1 인구감소와 부의 양극화 등 일본이 인식하는 위기 상황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전략수립 사례를 통하여 그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필요
- 2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현행 국토종합계획 이외에 2040년 또는 2050년을 염두에 둔 장기 국가미래상을 설정하고 비전 수립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3 범지구적 동반성장(inclusive growth), 인간 안전보장(human security) 실현 등 국제 공헌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함

1. 「일본재생 기본전략」의 수립배경 및 구성

● 기본전략 수립의 배경

- 현재 일본이 처해 있는 상태를 “위기 중 위기”로 평가하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대대적인 구조전환이 필요
 -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와 성장력 저하·재정상황 악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인구요인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인구 오너스(onus)¹⁾ 시대의 도래
 - 글로벌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 부의 집중과 빈곤층 확대 등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도 이미 “저변의 위기”가 진행
 - 이러한 저변의 위기에 더하여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재해,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전력공급 제약, 급속한 엔고(円高) 진행 등으로 “위기 중 위기”에 봉착
- 위기 극복 및 새로운 가능성 개척을 통하여 일본을 희망과 긍지의 국가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강한 위기감 하에서 우선 순위에 입각한 단호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2011년 9월에 출범한 노다 정부가 기본전략을 작성하여 12월 24일에 결정

● 전략의 구성

- 기본전략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는 「대지진 재해 및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의 부활」로서, 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성장전략”을 적용하여 일본의 재생을 선도하는 한편, 에너지·환경정책을 재설계하는 내용으로 구성
 - 둘째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으로서, 2011~2020년 간 연평균 명목성장률 3%, 실질성장률 2%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의 일체적 개혁을 통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
 - 셋째는 「3개 프런티어별 신성장전략의 실행」으로서, “경제 프런티어” 개척을 위한 성장 잠재력 강화전략, “사회 프런티어” 개척을 위한 두터운 중간층 부활전략, “국제 프

1) 오너스(onus)는 ‘부담’이란 의미의 영어임. ‘인구 오너스’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동시에 고령인구가 급증하여 인구가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서, 생산연령인구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인구 보너스(bonus)’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런티어” 개척을 위한 일본의 존재감 강화전략 등으로 구성

- 넷째는 「새로운 프런티어에의 도전」으로서, 경제·사회·국제 3개 프런티어 이외에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도전해야 할 새로운 프런티어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

【그림 1】 일본재생 기본전략의 구조



신성장전략이란?

- 2010년 6월 당시의 간(菅) 정부가 발표한 국가전략을 말함
-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 실현을 목표로 ① 그린 이노베이션을 통한 환경·에너지 대국 전략, ②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통한 건강 대국전략, ③ 아시아경제전략, ④ 관광입국·지역활성화전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입국전략, ⑥ 고용·인재전략, ⑦ 금융전략 등 7대 전략 설정

프런티어의 의미

- 우주개발, 해양개발, 경제, 사회, 과학기술, 교육(인재육성), 국제관계, 정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 별로 전개되는 “새로운 가능성의 개척”을 의미

2. 「일본재생 기본전략」의 주요 내용

1 대지진 재해 및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의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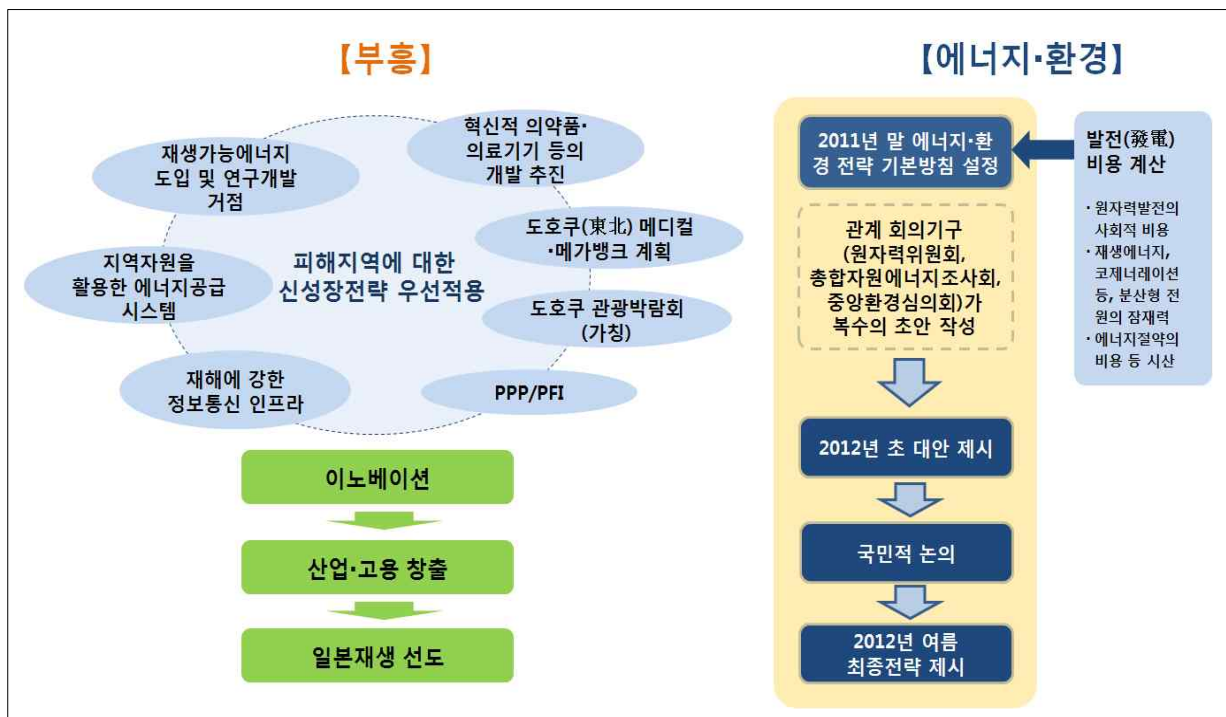
■ 동일본대지진 피해로부터의 부흥

- 이재민 취업지원과 생활기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부흥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흥청’ 창설 등으로 원스톱 대응체제 확립
- 원자력발전소 1~4호기의 단계적 폐지, 피해자 배상 및 생활재건, 오염배제 등 원자력 발전사고로부터 조속한 재생 도모
- 피해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하여 그린, 라이프,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신산업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2010년 6월에 발표된 신성장전략의 선도 시범지구로 조성

■ 에너지·환경정책 재설계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저감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런티어」를 개척
- 수상 직할기구로 설치된 ‘에너지·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원자력정책, 에너지믹스(energy-mix) 및 온난화대책에 대한 국가전략을 2012년 봄까지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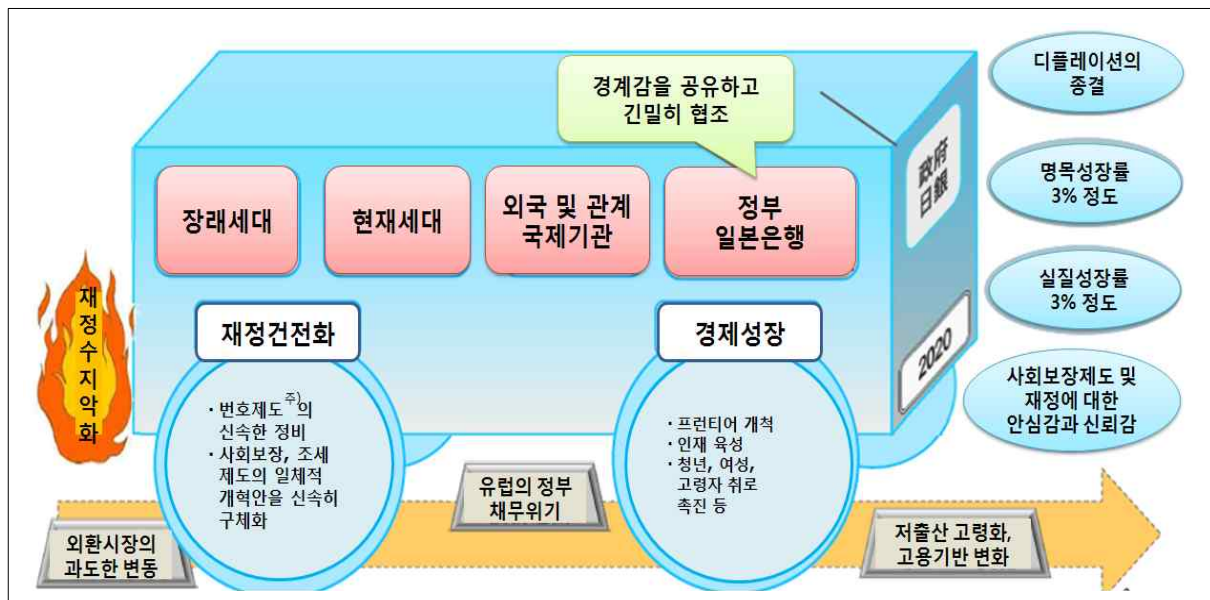
【그림 2】 대지진 재해 및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의 부활



2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

- 성장력 강화, 엔고·디플레이션에 대응한 거시경제 운영 및 유럽 정부채무위기 대비
 - 향후 2년 정도는 재해지역을 중심으로 부흥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일본은행이 하나가 되어 물가의 안정적 상승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여 디플레이션 종결 도모
 - 2011~2020년 간 연평균 명목성장률 3%, 실질성장률 2%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프런티어」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세 견지
 -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은 경제·금융에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시장을 주시하면서 적기 대응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관과의 연계 하에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담보하는 시책 추진
-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의 일체적 개혁 추진
 - 부담과 급부 간 밸런스를 유지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급부의 중점화·효율화 추진
 - 사회보장제도 및 재정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면서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
 -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는 자동차의 양 바퀴로서, 동시에 추진하여 양립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



주: 번호(番號)제도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와 같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동일인 식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세와 사회보장 급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일본에서 도입을 추진 중임.

3 3개 프런티어별 신성장전략의 실행

- 구조 전환을 통해 일본 재생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 사회, 국제 등 3개 부문별로 새로운 가능성, 즉, 「프런티어」 개척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의 성장력 강화를 위한 「경제 프런티어」 개척, 두터운 중간층 부활을 위한 「사회 프런티어」 개척, 세계 속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프런티어」 개척 추진
 - 기본전략에서는 프런티어별 추진전략과 중점시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시책내용과 수치적인 목표, 달성시기, 추진일정 등은 2012년 중에 발표될 예정임

● 성장력 강화를 위한 「경제 프런티어」 개척전략

- 동일본대지진, 엔고 진행 등으로 경제공동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분야 창출과 부가가치 창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축소경제에서 확대경제로 전환할 필요
 - 이를 위하여 미래적 관점에서 경제·산업구조를 부단히 쇄신해 나가는 ‘창조적 이노베이션’이 절실하게 요구됨
 - “무엇인가에 도전할 때의 리스크”보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의 리스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선 실행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
- 「경제 프런티어」 개척을 위한 전략으로 ① 경제협력 추진 및 세계 성장력 흡수, ②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③ 새로운 자금순환을 통한 금융자본시장 활성화, ④ 식량 및 농림어업 재생, ⑤ 관광진흥 등의 5가지를 제시
 - “경제협력 추진 및 세계 성장력 흡수”와 관련하여 EPA²⁾/FTA 추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제전략종합특구 활용, 해외 M&A 촉진 등의 시책 제시
 -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산업·신시장 창출”과 관련하여 그린산업, 라이프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해양·우주산업 육성시책과 창업지원, 규제개혁 등 방향 제시
 - “새로운 자금순환을 통한 금융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민협력 펀드 창설, 증권·금융·상품 종합거래소 창설, 자본성 차입금³⁾ 적극 활용 등의 시책방향 제시

2)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는 FTA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방안. 관세 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함하여 느슨한 형태의 경제공동체를 형성.

3) 자본성 차입금(資本性 借入金)은 지진으로 인하여 자본이 훼손된 기업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기존 차입금을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간주하여 줌으로써, 신규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

- “식량 및 농림어업 재생”과 관련하여 6차산업화, 성장산업화, 유통 효율화 등 제시
- “관광진흥”과 관련하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브랜드화 시책 제시

【표 1】「경제 프런티어」 개척 전략

전략	세부전략	중점 시책
① 경제협력 추진 및 세계 성장력 흡수	여러 관련 국가와 전략적·다각적 경제협력 추진	• EPA/FTA 추진 • 투자협정·조세조약·사회보장협정 체결 • 「위조품 거래방지협정」 조기 발효 등
	국내 사업환경 정비	• 입지보조금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화에 대응한 민법 개정 등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확대 추진	• 엔고를 활용한 해외 M&A 촉진, 자원 확보 • 패키지형 인프라의 해외진출 확대 • Cool Japan^{주)} 추진
	성장과실의 환류 및 일본의 아시아거점화 실현	• 국제전략종합특구의 활용, 해외투자 유치 • 해외 우수 인재의 영입 • 간호사, 간호복지사 후보인력 입국 확대
②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그린산업	• 에너지절약형 제품, 에너지 매니지먼트 촉진 •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전환
	라이프산업	•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심사체제 강화 • 우수한 일본 의료서비스·기술의 해외진출 촉진
	과학기술	•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이노베이션으로 연계 • 지역별 산학관 공동연구개발
	정보통신	• 의료서비스 등에 클라우드 보급 • 정보통신기술 활용 이업종·이분야 산업융합
	해양·우주	• 해양자원 획득을 위한 개발 • 우주공간 개발·이용 추진체제 구축
	창업지원·중소기업·규제개혁	• 창업촉진 종합 지원, 중소기업 제조기술 강화 • 규제개혁 추진
③ 새로운 자금순환을 통한 금융자본시장 활성화		• 국민협력 펀드 창설로 성장자금 공급 확대 • 증권·금융·상품 종합거래소 창설 • 각종 금융규제 재검토 • 「자본성 차입금」의 적극 활용
④ 식량 및 농림어업 재생		•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농업 실현 • 6차산업화, 성장산업화, 유통 효율화 • 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산어촌 자원 활용 • 산림 및 임업 재생, 수산업 재생
⑤ 관광진흥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브랜드화 • MICE 유치, LCC(저가항공) 진입 촉진 등

주: Cool Japan은 일본 문화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용어로서, 영국 토니 블레어 정권에서 추진한 Cool Britannia전략에서 유래함. 일본정부는 경제산업성에 ‘Cool Japan실’이라는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문화의 세계 진출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두터운 중간층 부활을 위한 「사회 프런티어」 개척전략

- 일본 재생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가 안정되어, 국민들이 성장을 실감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
 - 이를 위하여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에게 광범위하게 미치는 ‘인크루시브 성장’(Inclusive Growth) 추진으로 두터운 중간층 부활
 - 고용 확보를 통하여 ‘전원참가형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고, 커뮤니티의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재생을 추진
- 「사회 프런티어」의 개척 전략으로, ① 모두를 위한 사회·생활 기반 구축, ② 일본의 경제사회를 밑받침하는 인재 육성, ③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 형성의 3가지를 제시

【표 2】「사회 프런티어」 개척 전략

전략	세부전략	중점 시책
① 모두를 위한 사회·생활 기반 구축	중간층 사람들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고용창출	• 신산업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 • 지역별 고용창출 대책 추진
	전원참가형사회 실현을 위한 취업 촉진	• 「청년고용전략(가칭)」의 책정 •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 65세까지의 고용확보대책 마련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규칙 만들기
	세이프티 네트의 정비	• 취학 지원, 사회적 포섭정책 추진 • 「생활지원전략(가칭)」 마련, 직업훈련 강화
② 일본의 경제사회를 밑받침하는 인재 육성	알히는 것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제고	•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 강화 •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전환
	성장분야별 인재 육성	• 산학관 연계의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 실천적 직업능력 평가제도 도입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확보	• 고등교육기관 국제화 • 외국인유학생 확대, 해외유학 촉진
	기업의 채용관행 개혁을 촉진	• 연중 채용, 졸업 후 3년 이내는 신규졸업자 취급 • 「gap year」 제도의 보급 촉진
③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 형성		• 집약형 도시 등 저탄소·순환형 지속가능사회 실현 • 도시·농산어촌 교류촉진 • 「새로운 공공」의 개념에 입각한 공공공간 재생 • 「환경미래도시」 구상 추진 • 「지역활성화종합특구」 활용 • 지역자원 활용 및 역내 순환 • 동경권 중추기능 백업, 재해에 강한 국토만들기

● 세계 속에서 일본의 존재감 강화를 위한 「국제 프런티어」 개척전략

- 일본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발전과 안정화에 공헌할 필요
 -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국내지향성’을 탈피하여 보건·의료, 교육, 치수, 방재, 환경 보전 등 일본이 보유한 우수한 시스템 및 기술을 해외에 제공
 -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국제공헌과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세계의 ‘인크루시브 성장’(inclusive growth) 및 ‘인간 안전보장’(human security) 실현에 공헌
- 글로벌 시대로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일본이 선두에 서서 세계의 공통과제 해결
 - 세계경제의 구조전환,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에너지정책 및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은 일본이 직면한 과제임과 동시에 세계가 직면한 과제이기도 함
- UN을 비롯한 국제기관 및 국제포럼 등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본의 이미지 및 인식을 향상
 - 환경기술, 제조업기술, 국민성,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일본의 국가브랜드를 확립하여 세계에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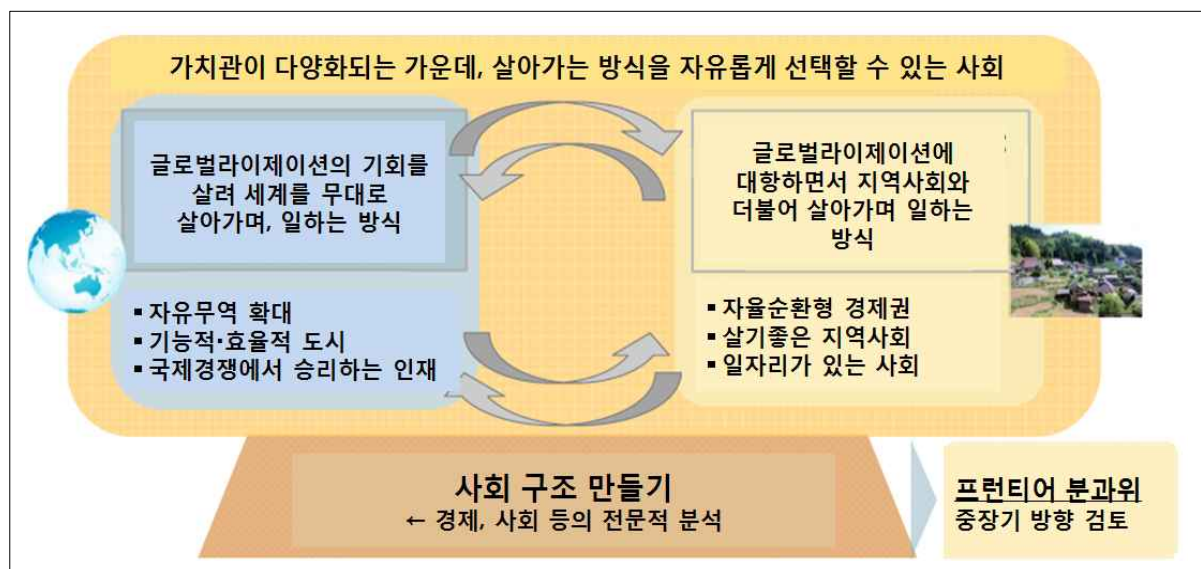
[그림 4] 세계 속에서의 일본의 존재감 강화전략



4 새로운 프런티어에 대한 도전

- 근대화 과정에서 균질화·획일화되어 온 개개인의 가치관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행과 더불어 다양화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편익을 최대한 추구하여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 속에서 일본 경제를 견인
 - 다른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항하면서, 일본의 가치관을 재인식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안락한 지역사회를 구축
- 전자를 위해서는 「글로벌 프런티어」의 확장이, 후자를 위해서는 「내부 프런티어」의 창조가 요구됨
 - 「글로벌 프런티어」의 확장을 위해서는 세계 도시 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구축하여 도시중심 기능의 집적을 유도할 필요
 - 「내부 프런티어」 창조를 위해서는 대도시로부터 지방으로의 분산화를 추진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 local food의 의미) 등의 자율순환형 경제권 형성이 필요
- 이상의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수상관저 내 국가전략실에 「프런티어 분과회(分科會)」를 설치하고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개척할 새로운 프런티어를 검토 중

〔그림 5〕 새로운 프런티어를 향하여



3. 「일본재생 기본전략」 발표 이후의 동향

- 기본전략의 발표에 뒤이어 2012년 2월에는 국가전략실 내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런티어 분과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중장기비전 수립에 착수
 - 향후 개척하여야 할 영역(프런티어)으로 번영 프런티어, 행복 프런티어, 예지 프런티어, 평화 프런티어의 4개 프런티어를 설정하고, 프런티어별 논의를 위해 부회(部會)를 구성
 - 2012년 6월 말까지 2050년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상 및 2025년까지의 구체적 정책방향과 수치목표, 추진일정 등을 담은 「일본재생전략」을 마련할 예정

【표 3】「프런티어 분과위(分科委)」의 구성 및 목적

구성	역할
(1) 「번영 프런티어」 부회(部會)	• 경제는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위한 기반이자, 일본의 적극적 대외 관여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던 산업분야를 신흥국들이 급격히 추격하는 가운데, 새로운 번영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 • 본 부회는 ① 이노베이션 정책의 추진방향, ② 일본경제와 글로벌경제 간 연결방식, ③ 통화변동에 대한 일본경제의 내구력 제고방안, ④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전략, ⑤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일본인의 근로방식 등에 관한 프런티어 제시를 목적으로 함
(2) 「행복 프런티어」 부회(部會)	• 경제적 기반이 행복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하여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님 • 행복을 쉽게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① 사람들이 다양한 인연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 ② 개개인이 최대한 스스로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사회, ③ 위기를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 ④ 세대 간에 수익과 부담이 균형되어 있어 장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형성이 필요 • 본 부회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화함을 목적으로 함
(3) 「예지 프런티어」 부회(部會)	• 글로벌 경제 속에서 일본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사회에 구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본 부회는 창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최고의 지식이 추진력 강한 행동으로 연결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함. 우수한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짐으로써 비로소 「예지(叡智)」가 됨
(4) 「평화 프런티어」 부회(部會)	• 세계 평화와 국가의 안전은 일본의 번영과 국민 행복의 전제조건임. 선진국의 퇴조와 대형 신흥국가의 대두로 역사적인 파워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바람직한 국제사회 형성을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각종 리스크가 글로벌 규모로 발생하고 전파되는 현실 속에서, 본 부회는 새로운 관점에서 국가 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함

4. 정책적 시사점

- 인구감소와 부의 양극화 등 일본이 인식하는 위기 상황의 상당 부분은 국내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전략수립 사례를 통하여 우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
 - 일본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성장력 저하와 재정상황 악화, 고령화와 인구감소, 글로벌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 부의 집중과 빈곤층 확대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재정상황 악화, 고령화와 출산을 저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경영환경 악화, 부의 양극화 등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성장력 확충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전개할 필요
-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국토종합계획 이외에 2040년 또는 2050년을 염두에 둔 장기 국가미래상을 설정하고 비전 수립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유일한 국가기본계획으로서 2011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중기계획으로서 국가의 장기비전을 담지 못하고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및 국토의 미래를 전망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30~40년 이후를 내다본 국가비전 수립에 착수할 필요
- 범지구적 동반성장(Inclusive Growth), 인간 안전보장(Human Security) 실현 등 국제 공헌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 강화 모색
 - 국내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국제 프런티어 전략을 통하여 세계경제와 동반성장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인권침해, 난민, 빈곤 등의 갖가지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생존, 생활, 존엄을 보호한다는 이른바 인간 안전보장(Human Security)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
 - 우리나라도 G20의장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 공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범지구적 동반성장과 인간 안전보장 실현을 위한 일본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강화해가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

●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 이동우 본부장(dwlee@krihs.re.kr, 031-380-0198)